

20250328 권찰회 (설교: 박래휘 목사) TCK HOUSE (로마서 16:25-27)

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
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
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
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
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
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
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

▶ 상처가 정체성이 된 이 아이들을 237, 5천 종족까지 파송하는
전도 제자로 키우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셨습니다. 여러분 지속해서
TCK 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체 시론> 영적 싸움

▶ 한 주간 영적 싸움 여러분 계속 안 멈추고 계속하고 계십니
까? 영적 싸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. 영적 싸움, 이
걸 멈추면 우리 후대들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후대들에게
는 그 악순환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대신 해줘
야 됩니다.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고요.

1. 나의 망대(은혜)

▶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, 여러분 자신이 내
안에 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.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은혜
받아야 돼요.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누구를 살릴 수
가 없습니다.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도
살릴 수 있어요. 왜? 힘이 있기 때문예.

▶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. 현장도 보이
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과 나의
그 1대1 관계 속에서 은혜 받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 인
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.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서
말씀 붙잡고, 기도하고, 은혜 받는 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

▶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, 또 묵상하
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. 그러면 저는 설
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
니다. 그게 말씀이고, 그게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들이
고, 그게 여러분 구역장, 권찰들이 구역원들에게 나눠줘야 될
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예요.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
니다.

2. 나의 여정(현장)

▶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여정,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을 보는
눈을 뜨셔야 됩니다. 영적인 눈을 뜨셔야.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
께서 그 장로님이 TCK 사역을 하시는데요. 우리교회의 어떤 TCK
2명을 집중해서 양육하세요.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장로
님이 진짜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거든요.
그런데 사역하다 보면 애들이 막 회복돼요.

▶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고, 메시지도
잘 쓰고,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
떨어지고, 좋아하다가 갑자기 또 확 내려가고, 내려가면 어느 정
도야 하면 이 메시지가 쓰면 쓰다 글씨가 완전 지렁이처럼 된
대요. 고등학교 TCK인데 그만큼 이제 뭐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왜
그럴까?

▶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 집에 가게 된 겁니다. 우리 고등
부 목사님하고 같이 갔대요. 그런데 항상 그 집이 옛날 집인데 앞
에 방이 하나 있고, 안쪽에 방이 또 하나 있대요. 그런데 늘 이제
앞에 있는 방에서 가면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, 이렇게 했다는
거예요.

▶ 그런데 얼마 전까지 많이 추웠잖아요? 지금은 많이 더워졌지
만 거기 갔는데 불을 안 때는 방인데 완전히 얼음장인 거예요. 그
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못 앉아 있겠다 싶어서 너무 추운데 저 안
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해서 최초로 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.
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바로 알게 되
었대요. 왜냐하면 그 집에, 그 방에 요즘 것도 아니고, 정말로 조
션시대에서 존재할 만한 그 단지 있죠. 신주 단지인 거죠. 그 신
주 단지가 딱 안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

▶ 그러니까 그 영적인 영향력이 램넌트 TCK를 얼마나 사로잡고
있겠습니까? 맞잖아요. 그런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. 우리
장로님이 그래서 정말로 집중해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
다. 그래서 그걸 아버지 설득해가지고, 우리 램넌트한테 아버지
설득해서 저거 치우라고 계속 얘기해라. 장로님이 뒤에서 계속 기
도 해 줄게,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.

▶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우리가
선교 현장 갔다 오면 눈이 확 열려서 오죠. 여러분 선교지 갔다
오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? 눈이 확 열려서 오잖아요. 왜?
거기 가면 바로 보입니다. 눈에 그냥 드러나게 보여요. 그런데 우
리나라 정도 되면 잘 안 보입니다.

▶ 그런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
우리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일하고 있는 곳, 아니면 우리
가정, 가문에 흐르는 흑암과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
된다 이 말이죠. 그런데 그걸 못 보면 살릴 수가 없다. 그래서 여
러분 눈을 뜨시고, 보셔야 됩니다.

▶ 이름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그 큰 종교에 그 종교를 가
르치는 큰 기관이 있어요. 그런데 그 큰 기관, 매일, 365일, 24시
무상송배하는 엄청 큰 기관이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 근처에 이사
간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, 너무 무서워 가
지고, 여러분 도어락 한 개 잠그면 끝이잖아요?

▶ 원래 도어락 한 개 안 되어 가지고, 자물쇠를 3개를 끌어 잠근
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야 애들이 안심이 된대요. 어떻습니까? 여
러분 흑암이 역사하는 것,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면
우리는 바른 답을 줄 수가 없어요.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
거죠.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
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눈을 뜨시라.

3. 나의 이정표(제자)

▶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이정표, 바로 하나님
이 기뻐하는 제자와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. 그 지역 살릴 수 있는
그 시스템을 남기는 거죠.

▶ 그래서 여러분,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게 1번이고요. 그 현장을
볼 수 있는 눈을, 영안을 뜨는 게 두 번째고, 이거를 통해서 하나
님이 이거 된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 제자, 복음 운동할 그 사람,
복음 운동할 그 다락방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 이 말이죠.

▶ 여러분 구역을 이 눈으로 보세요. 여러분 구역원 한 사람, 한
사람을 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바른 답을 주고, 그
사람, 그 가정, 가문에 있는 영적문제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줘
서 치유하고, 구역원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구역장, 우리 권찰
님들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
▶ 오늘 제목이 뭐죠? 'TCK 하우스'입니다. 오늘 얘기를 다 들었
으니까 제가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재를 받으셨으
니까요.

시론> 바울, 안디옥 교회 - 방향, 목표(237 나라, 5천 종족)

▶ 여러분 바울이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초대교회
가 처음 쓰임 받았지만 마가 다락방 교회,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
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
을 알았던 거예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, 하나님의 목표
가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.

▶ 그게 바로 237 나라, 5천 종족이거든요. 이거를 봤기 때문에
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지만 바울을 쓰셨고, 마가 다락방 교회를
쓰셨지만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.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 여기
로 딱 맞춰져야 됩니다.

본론> TCK - 237 나라, 5천 종족의 문

▶ 본론에 여러분 이 TCK가 왜 중요한가? TCK는 237 나라, 특
히 5천 종족의 문이예요. 우리교회에 있는 러시아 TCK 한 명 있
는데 그 친구도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. 그런데 그 친구도
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합니다.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
한 친구예요. 그런데 지금도 자기 러시아에 있는 고향에 할아버
지, 할머니하고 통화하고, 방학만 되면 거기에 갑니다.

▶ 그리고 그 러시아 정교회 집안이거든요. Orthodox라고 그러
죠. 러시아 정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 아이가 고
등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시달렸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한
것을 넘어서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더라고요. 이게 영적인
배경 아닙니까?

▶ 그런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현장이 뭐죠? 러시아에 바로
연결되어 있는 우리 부모님, 할머니, 할아버지의 현장이예요. 그
러면 이 친구가 복음을 확실하게 준비하면 바로 문이 열리는 겁
니다. 그만큼 TCK가 5천 종족의 문이라니까요. 여러분 이 사실을
기억하시고, 우리교회에 있는 TCK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품
고,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.

1. 램넌트 = TCK(교회)

▶ 첫 번째, 램넌트는 곧 7명의 램넌트 전부 다 TCK들이었습니
다. 요셉은 애굽의 TCK였고, 모세도 애굽의 TCK였죠. 여러분 바
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. 헬라어, 히브리어를

동시에 하는 TCK였어요. 하나님은 이런 TCK들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 거죠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약점이 많습니다. 그런데 시간 지나면 완전히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예요.

▶ 그래서 여러분이 이 TCK를 기억하시고,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TCK는 다민족부에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.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. TCK 사역은 우리 하나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사역이요. TCK는 누가 키우냐? 우리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서 키워야 됩니다. 그게 우리 하나교회가 감당해야 될 237 사역이예요.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

2. 와 있는 TCK

▶ 그리고 두 번째, 와 있는 TCK. 오늘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들어와 있는 가정과 그 자녀들이 TCK들 아닙니까? 이 아이들이 확실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.

▶ 지금 성서 지역에 계명대 앞에서도 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. 약기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습니다. 우리 현지 교사들 3명이예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. 그런데 그 친구들도 보면 베트남도 있고, 몽골도 있거든요.

▶ 그런데 그 몽골 친구도 보면 늘 몽골에 왔다 갔다 해요. 그런데 애는 그냥 얘기해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. 외국 사람인지 티가 애에 안 나요. 몽골 사람이니까 더 한국적이예요. 그런데 늘 몽골에 왔다 갔다 합니다. 애가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몽골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. 너무 쉬운 선교 아닙니까?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, 거기서 막 하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. 그런데 이 TCK 한 명 키우면 바로 몽골에 선교 문이 열린다니깐요.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.

1)사명

▶ 그러면 애들한테 사명을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.

2)훈련

▶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진짜 복음 전할 전도 제자로 딱 훈련시키는 겁니다.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아이들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, 대신 영적 싸움을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그 영적인 배경을 깨고,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TCK들을 도와야 된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TCK 사역의 포인트입니다.

3. 초청 TCK

▶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? 초청할 수 있어요, 초청할 TCK.

1)준비

▶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는 복음이 딱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현지의 제자들이 있습니다. 찾아져요. 그런 사람들이 연결 되어서 이제 우리교회에 와서 훈련받는 거죠. 이번에 여러분 4월달에 또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 시작됩니다. 이번에도 한 40명 넘게 올 거예요.

▶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이분들 중에 한 네 분 정도 한 달 동안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작년엔. 그런데 하면서 느꼈던 게 '이분들 완전히 사명자구나.',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훈련받고 돌아가면 다락방을 막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.

▶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그 사람은 또 풀타임이 아니예요. 풀타임이 아닌데 풀타임 사역자처럼 사역을 하더라고요. 방송국 사람들인데 일 다 하고, 퇴근하면 잠잘 때까지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. 일주일 내도록,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 비는 타임이 없어요. 그런데 이번에도 훈련받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락방 문을 열어 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.

▶ 우리는 그게 바램인데 두려움이 있어요. '하나님, 이번에는 좀 덜 열어주세요.', 그리고 기도한다 하더라고요. 더 이상 할 수 있는 타임이 없으니까,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이 사명자들이 해외에 많습니다.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선교하면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오게 하실 거예요. 훈련받고, 그래서 다시 이제 파송하는 거죠.

▶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있잖아요? 사명자들입니다. 지금 이분들이 갑자기 비자가 만료 되어서 돌아간다? 어떻게 되겠어요? 거기에 진짜로 복음 가진 전도하던, 한국에서 다락방 하던 사람이 그 현지에 뚝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?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여러분

분 기억하시고, 진짜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.

2)전도

▶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우리교회에 붙여주시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이번 중남미 40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, 혹시나 여러분 집에서 홈스테이 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.

결론> 방향 - 237

▶ 결론입니다. 아까 서론에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.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. 우리가 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면 내가 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. 그런데 내가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,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안 돼요.

▶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 자녀 양육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, 여러분 사업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, 여러분의 사역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, 그렇죠? 모든 방향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에 맞춰져야 이 말입니다. 그러면 내가 응답받으려고 안 해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. 이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

기도>

▶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붙잡고, 우리 구역장, 우리 권찰님들이 237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, 하나님과 방향 맞는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하나교회 자료팀

국장 : 이구영 장로 / 팀장 : 조재호 집사(hanadoc138@kakao.com)

유튜브 채널(대구하나교회) : <https://www.youtube.com/ihanachurch>

다음 카페 : <http://cafe.daum.net/hanarutc>

교회 홈페이지 : <http://www.ihanachurch.com/>

* 주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5 (우. 42748)